

이슈페이퍼 2014-17

www.kicce.re.kr

ISSUE

P A P E R

가구소득 격차에 따른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요약	1
1. 연구 배경	2
가. 연구의 필요성	2
나. 연구 목적	2
다. 용어 정의	3
2.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	4
가. 출생 후 문화시설 이용 여부	4
나. 문화시설 처음 이용 시기	6
다.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여부	7
라. 문화시설 이용 목적(최근 1년)	8
마. 문화시설 미이용 이유(최근 1년)	10
바. 이용 만족도 및 요구사항	13
사.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14
3.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 지원방안	17
가.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	18
나.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	18
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실시	19
라. 기존 공공재 문화시설 홍보와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19
마.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0
바.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	21
사.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도서관' 설립 추진	21
참고문헌	22

표 차례

〈표 1〉 용어 정의	3
〈표 2〉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4
〈표 3〉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 여부	7
〈표 4〉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문화시설별 이용 목적	8
〈표 5〉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이용 이유	9
〈표 6〉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미이용 이유	10
〈표 7〉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미이용 이유	12
〈표 8〉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13
〈표 9〉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1+2순위)	15
〈표 10〉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변인별	16
〈표 11〉 현재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1+2순위)	16
〈표 12〉 거주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변인별	17

그림 차례

[그림 1]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	5
[그림 2] 가구소득별 소비재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	5
[그림 3]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시기	6
[그림 4]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정도	8
[그림 5]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14
[그림 6] 가구소득별 소비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14

요약

- 영유아들은 출생 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문화시설별로 이용의 차이는 있음. 집근처 놀이터는 95.3%가 이용한 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이상, 공공재 문화시설이라 명명)의 이용은 약 20% 안팎으로 저조함.
- 영유아들의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이 낮은 것에 비해, 놀이공원 70.5%, 수족관·동식물원(62.2%, 사설 키즈카페 48.8%, 극장 47.7%(이상, 소비재적 문화시설이라 명명) 등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최근 1년 동안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향도 유사함. 공공재 문화시설보다 소비재 문화시설의 이용이 많으며,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가 대체적으로 모든 문화시설의 이용이 높음. 특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같이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은 일반가구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놀이터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일찍 이용하는 보편적인 문화시설임(만 1세 기준 영유아의 약 74%가 이용함). 문화시설마다 이용목적의 차이가 있지만, 이용이 많은 소비재 문화시설의 경우 ‘자녀의 놀이활동’, ‘가족과의 시간향유’의 이유가 공공재 문화시설보다 높음.
- 영유아기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 2) 문화바우처 가구원별 비용지원, 3)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4) 기존 공공재 문화시설 활용과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5)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6)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 7)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추진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함.

* 본고는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의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1. 연구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2013년에 출범한 새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하고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수준의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정책을 수립함.
 -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수준의 격차에서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율이 가장 낮음.
 - 문화향유율 전체 평균 69.6%, 지역 52.7%, 연령 30.4%, 소득 26.9%로 집계(문화체육관광부, 2013)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율은 26.9%이지만, 월 500만원 이상은 83.5%로 격차가 상당히 큼(문화체육관광부, 2012c:41).
 -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의하면, 영유아기의 문화체험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자는 이후 문화예술 관람율이 약 90%에 달했으나, 비경험자는 60%로 낮았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2c:40)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도 유아동기의 경험자는 58.7%가 이용했지만, 비경험자는 36.0%에 그침(문화체육관광부, 2012:66).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문화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렸을 때부터 문화경험을 누린 아이들이 이후 문화생활을 향유할 경우가 높다고 하겠음.

나. 연구 목적

-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문화시설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특히, ‘가구소득’에 초점을 두고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 집단 간의 영유아 자녀의 문화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함.

- 전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 782사례, 저소득가구 218사례 등 총 1,000사례를 표집함.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의 저소득층 가구 정보는 알 수 없음. 게다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정보는 더욱 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Target sampling을 실시함.

다. 용어 정의

- 문화인프라, 문화인프라의 종류, 영유아 문화인프라의 용어정의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함.
- 본고에서 다룬 문화인프라의 종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하고 이를 “공공재적 문화시설”로 범주화함.
 - 그 밖에 문화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극장, 놀이공원,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 동식물원은 “소비재적 문화시설”로 범주화함.

<표 1> 용어 정의

용어	조작적 정의
문화인프라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과 동의어로 사용함.
문화인프라 종류	1. 매년 정부가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류 : <u>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u> ,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시설 : <u>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u> ※ 1, 2의 공통 시설(밑줄 친 시설)을 문화인프라 종류로 정하고 여기에 영유아의 특성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u>어린이놀이터</u> 포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놀이터 : 공공재 문화시설 + 극장, 사설 키즈카페, 수족관, 동식물원 : 소비재 문화시설
영유아 문화인프라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처럼 어린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문화인프라와 동의어로 사용함.

2.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 실태

가. 출생 후 문화시설 이용 여부

- 집근처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출생 후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영유아들은 집근처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함(95.3%). 놀이공원 70.5%, 수족관·동식물원 62.2%, 사설 키즈카페 48.8%, 극장 47.7% 순임.
 - － 집근처 놀이터의 높은 이용에서, 영유아에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규정한 문화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이용은 매우 저조함.
- 영유아들은 공공재적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보다는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놀이공원이나 사설 키즈카페 등과 같은 소비적인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함.

〈표 2〉 영유아의 문화시설 종류별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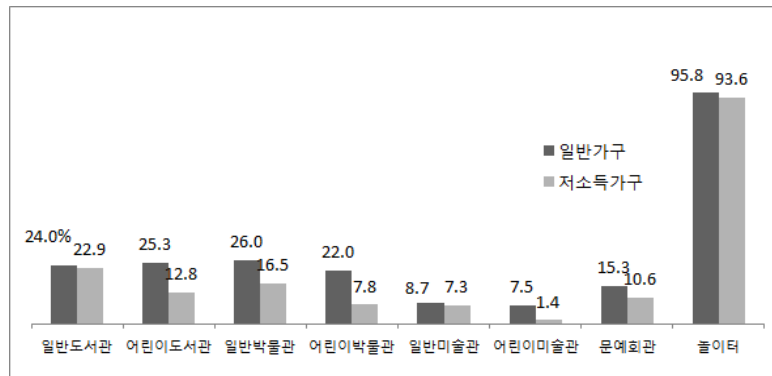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일반도서관	23.8	76.2	100.0(1,000)
어린이도서관	22.6	77.4	100.0(1,000)
일반박물관	23.9	76.1	100.0(1,000)
어린이박물관	18.9	81.1	100.0(1,000)
일반미술관	8.4	91.6	100.0(1,000)
어린이미술관	6.2	93.8	100.0(1,000)
문예회관	14.3	85.7	100.0(1,000)
놀이터	95.3	4.7	100.0(1,000)
극장	47.7	52.3	100.0(1,000)
놀이공원	70.5	29.5	100.0(1,000)
사설 키즈카페	48.8	51.2	100.0(1,000)
수족관/동·식물원	62.2	37.8	100.0(1,0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놀이공원의 입장료와 이용료, 수족관·동식물원의 입장료가 1인당 1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으며, 1회 이용 시 1~2시간의 시간제한을 두면서 1인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1~2만원이 소요되는 사설 키즈카페의 이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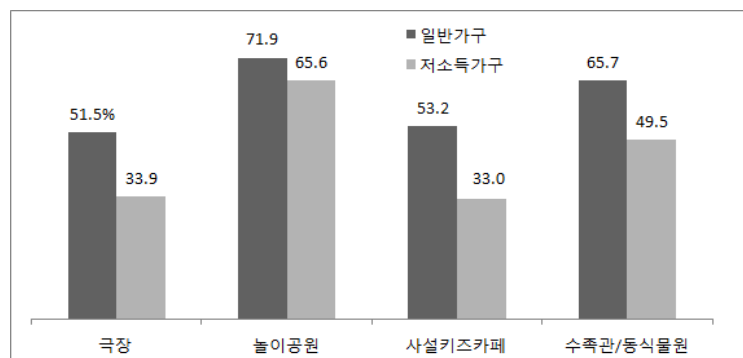
48.8%로 매우 높게 나타남. 영유아기에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어린 아동의 놀이문화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이 저조한 가운데 가구소득별로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 모든 문화시설의 이용에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를 앞선 것으로 나옴.
- 가구소득별 이용 격차가 큰 문화시설로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임을 알 수 있음.



[그림 1]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

- 공공재 문화시설보다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는 소비재적 문화시설 이용도 예상대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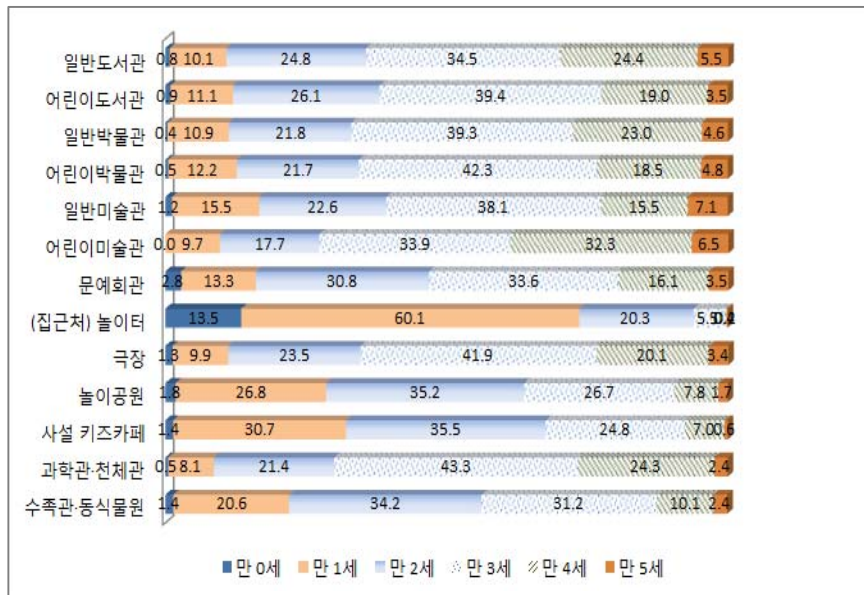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소득별 소비재 문화시설 처음 이용 정도

- 놀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시설의 이용 격차는 약 15%~20%이며 시설 키즈카페의 이용 격차 20.2%로 가장 큼.

나. 문화시설 처음 이용 시기

□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종류별로 이용 시기를 알아봄.

- 가장 일찍 이용하기 시작한 문화시설은 놀이터로서 만 0세에 13.5%, 만 1세에 60.1%가 이용하는 등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용하기 시작하며 걷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영유아 문화시설임.
- 영유아기에 이용 경험이 많은 문화시설일수록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도 대체로 빠름.
- 이용 경험이 많은 놀이공원의 경우 처음 이용시기가 만 1세 26.8%, 만 2세 35.2%로 영아기에 약 62.0%가 이용함.
- 이용하지 않은 경험이 가장 많이 나온 어린이미술관의 경우 처음 이용시기는 만 3세 33.9%, 만 4세 32.3%로 약 66.2%가 유아기에 이용함.



[그림 3] 문화시설 종류별 최초 이용 시기

다. 최근 1년 문화시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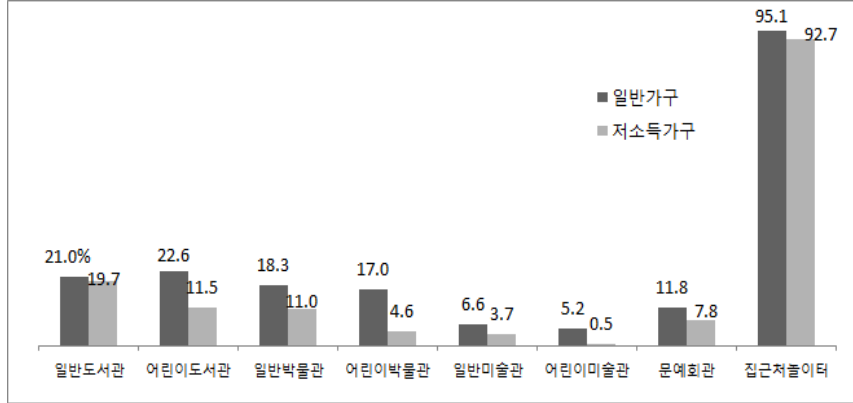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집근처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함(94.6%). 놀이공원 60.5%, 수족관/동·식물원 47.1%, 사설 키즈카페 44.0%, 극장 42.1% 순으로 이용함.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같이 공공재적인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상당히 낮음.

〈표 3〉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이용 여부

구분	단위: %(명)		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일반도서관	20.8	79.2	100.0(1000)
어린이도서관	20.2	79.8	100.0(1000)
일반박물관	16.7	83.3	100.0(1000)
어린이박물관	14.3	85.7	100.0(1000)
일반미술관	6.0	94.0	100.0(1000)
어린이미술관	4.2	95.8	100.0(1000)
문예회관	10.9	89.1	100.0(1000)
집근처 놀이터	94.6	5.4	100.0(1000)
극장	42.1	57.9	100.0(1000)
놀이공원	60.5	39.5	100.0(1000)
사설 키즈카페	44.0	56.0	100.0(1000)
과학관, 천체관	15.3	84.7	100.0(1000)
수족관, 동·식물원	47.1	52.9	100.0(10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공공재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같이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의 이용에서 일반가구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에서의 어린이도서관 22.6%, 어린이박물관 17.0%, 어린이박물관 5.2%가 최근 1년 이용했다면, 저소득가구는 동일 문화시설 이용이 각각 11.5%, 4.6%, 0.5%에 불과함.
- 가구소득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시설 이용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정도

라. 문화시설 이용 목적(최근 1년)

- 도서관은 독서·대출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림전시와 같은 관람을 목적으로 문화시설은 이용함. 즉, 문화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이용하고 있음.

〈표 4〉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문화시설별 이용 목적

단위: %(명)

구분	관람	프로그램 참여	놀이 활동	독서·대출	지식 습득	가족과 시간 향유	부모 휴식	계
일반도서관	3.9	8.7	2.4	77.3	1.4	5.8	0.5	100.0(207)
어린이도서관	5.0	7.9	2.5	76.2	4.5	3.5	0.5	100.0(202)
일반박물관	52.7	3.0	2.4	6.6	11.4	22.2	1.8	100.0(167)
어린이박물관	56.6	15.4	2.1	2.1	10.5	12.6	0.7	100.0(143)
일반미술관	71.7	8.3	1.7	6.7	5.0	5.0	1.7	100.0(60)
어린이미술관	66.7	19.0	0.0	0.0	9.5	4.8	0.0	100.0(42)
문예회관	57.8	15.6	8.3	0.0	0.9	17.4	0.0	100.0(109)
집근처 놀이터	0.4	0.4	80.9	0.4	0.1	14.7	3.1	100.0(946)
극장	74.3	1.9	7.1	0.0	0.5	14.3	1.9	100.0(421)
놀이공원	4.1	1.2	47.3	0.0	0.5	44.3	2.6	100.0(605)
사설 키즈카페	2.0	3.9	74.8	0.2	1.1	8.0	10.0	100.0(440)
과학관, 천체관	39.9	9.8	3.9	0.0	24.2	20.9	1.3	100.0(153)
수족관, 동·식물원	22.9	2.5	7.9	0.2	7.4	55.2	0.4	100.0(4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어린이 전용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용한 경우가 일반 도서관·박물관·미술관보다 많음.
- ‘가족과 시간 향유’ 또는 ‘자녀의 놀이활동’을 위해서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었음.
 - 자주하는 이용하는 놀이공원이나 수족관, 동식물원의 주된 이용 목적은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가 각각 44.3%, 55.2%로 주를 이룸.
- 이는 영유아 자녀와 함께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려면, 문화시설 그 자체가 재미있고 편안하면서 자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가구특성별로 지난 1년 동안 공공재 문화시설의 이용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앞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알 수 있음. 문화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도서관은 독서·도서 대출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은 관람을 위해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특성별 이용 이유의 차이는 없지만, 이용한 사례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5 참조).
 - 어린이도서관의 이용가구가 총 202사례라면, 이 중 일반가구는 177사례이며 저소득가구는 22사례에 불과함. 다른 공공재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임.

〈표 5〉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관람	프로그램 참여	놀이 활동	독서·대출	지식 습득	가족과 시간향유	부모 휴식	계
일반도서관								100.0(207)
일반가구	4.9	9.8	1.8	75.0	1.2	6.7	0.6	100.0(164)
저소득가구	0.0	4.7	4.7	86.0	2.3	2.3	0.0	100.0(43)
$\chi^2(df)=6.458(6)$								
어린이도서관								100.0(202)
일반가구	5.6	8.5	2.4	74.6	4.5	4.0	0.6	100.0(177)
저소득가구	0.0	4.0	4.0	88.0	4.0	0.0	0.0	100.0(25)
$\chi^2(df)=3.895(6)$								
일반박물관								100.0(167)
일반가구	53.1	2.8	2.1	7.0	9.1	23.8	2.1	100.0(143)
저소득가구	50.0	4.2	4.2	4.2	25.0	12.5	0.0	100.0(24)
$\chi^2(df)=7.038(6)$								

(표 5 계속)

구분	관람	프로그램 참여	놀이 활동	독서·대출	지식 습득	가족과 시간향유	부모 휴식	계
어린이박물관								100.0(143)
일반가구	58.6	15.0	2.3	1.5	9.0	12.8	0.8	100.0(133)
저소득가구	30.0	20.0	0.0	10.0	30.0	10.0	0.0	100.0(10)
$\chi^2(df)=8.956(6)$								
일반미술관								100.0(60)
일반가구	75.0	7.7	1.9	3.8	3.8	5.8	1.9	100.0(52)
저소득가구	50.0	12.5	0.0	25.0	12.5	0.0	0.0	100.0(8)
$\chi^2(df)=7.258(6)$								
어린이미술관								100.0(42)
일반가구	68.3	19.5	7.3	0.0	-	4.9	-	100.0(41)
저소득가구	0.0	0.0	100.0	-	-	0.0	-	100.0(1)
<i>na</i>								
문예회관								100.0(92)
일반가구	59.8	13.0	6.5	-	1.1	19.6	-	100.0(17)
저소득가구	47.1	29.4	17.6	-	0.0	5.9	-	100.0(109)
$\chi^2(df)=6.744(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마. 문화시설 미이용 이유(최근 1년)

- 최근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임.
 -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미술관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의 미이용 이유는 ‘근처에 이용 가능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를 많이 응답함.
 - 영유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표 6> 문화시설 종류별 지난 1년 동안 미이용 이유

구분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이용할 필요 못느껴서	시설 수준 불만족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부족			기타	계
						자녀가 어려서	프로그래	부족		
일반도서관	219	26	102	198	13	40	395	06	1000(793)	
어린이도서관	432	36	108	139	10	20	246	09	1000(798)	
일반박물관	305	56	114	152	13	46	309	05	1000(833)	

단위: %(명)

(표 6 계속)

구분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이용할 필요 느끼지 않아서	시설 수준 불만족	마음에 드는 프로 그램 부족	자녀가 어려서	기 타	계
어린이박물관	48.7	6.0	10.4	11.0	0.8	2.0	20.3	0.9	100.0(85.7)
일반미술관	33.7	6.7	8.1	17.9	0.2	4.3	28.8	0.3	100.0(94.0)
어린이미술관	50.1	5.2	10.0	11.8	0.1	2.6	19.3	0.7	100.0(95.8)
문예회관	29.1	11.0	9.2	15.9	0.4	5.8	28.1	0.4	100.0(89.1)
놀이터	24.1	1.9	13.0	22.2	5.6	0.0	33.3	0.0	100.0(54)
극장	11.7	12.8	10.7	11.1	0.7	9.7	43.4	0.0	100.0(57.9)
놀이공원	31.4	20.3	12.2	6.1	2.0	0.5	27.3	0.3	100.0(35)
시설 키즈카페	30.4	28.9	10.0	13.4	2.5	1.4	13.4	0.0	100.0(50)
과학관/천체관	36.8	12.5	10.4	9.9	0.5	3.1	26.2	0.6	100.0(84.7)
수족관/동식물원	32.1	16.3	17.0	9.5	2.1	1.9	20.6	0.6	100.0(52.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공공재 문화시설에 국한하여 지난 1년 동안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가구특성 별로 분석함(표 7 참조).
-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일반도서관은 ‘자녀가 어려서’를, 어린이도서관은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어린이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성이 있는 문화시설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어린이도서관이 집 주변 가까이에 설립될 필요성을 보여줌.
 - 박물관은 가구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일반가구는 일반박물관의 미이용 이유로 ‘자녀가 어려서’, 어린이박물관은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함.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는 일반 및 어린이도서관 모두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음.
 - 저소득가구의 경우, 박물관의 미이용 이유로 ‘비용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약 4배 이상 높음.
 - 미술관도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미이용 이유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자녀가 어려서’를 가장 많이 꼽음.
 -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용부담’과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음.

- 문예회관은 가구특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 일반가구는 ‘자녀가 어려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순으로 나온 반면, 저소득가구는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와 ‘비용부담’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옴.
- 저소득가구에서 ‘비용부담’의 응답비율이 일반가구보다 4배 이상 많음. 음악회, 뮤지컬, 작품전시회 등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료나 관람료가 대체로 고액이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에서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음.

<표 7> 문화시설 종류별·가구특성별 지난 1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비용부담	시간부족	이용필요를 못느껴서	시설수준불만족	프로그램부족	자녀가 어려서	기타	계
일반도서관									100.0(793)
일반가구	22.3	2.1	10.4	18.4	1.0	4.4	40.8	0.7	100.0(618)
저소득가구	20.6	4.6	9.7	24.6	2.3	2.9	34.9	0.6	100.0(175)
	$\chi^2(df)=10.609(9)$								
어린이도서관									100.0(798)
일반가구	42.8	2.6	10.6	14.5	1.2	1.7	25.8	0.9	100.0(605)
저소득가구	44.6	6.7	11.4	11.9	0.5	3.1	20.7	1.0	100.0(193)
	$\chi^2(df)=12.103(8)$								
일반박물관									100.0(833)
일반가구	29.9	3.3	11.1	15.3	1.6	5.3	33.0	0.5	100.0(639)
저소득가구	32.5	13.4	12.4	14.9	0.5	2.1	23.7	0.5	100.0(194)
	$\chi^2(df)=36.896(8)$ ***								
어린이박물관									100.0(857)
일반가구	52.1	3.4	9.1	10.6	0.8	1.8	21.3	0.9	100.0(649)
저소득가구	38.0	13.9	14.4	12.0	1.0	2.4	17.3	1.0	100.0(208)
	$\chi^2(df)=45.528(8)$ ***								
일반미술관									100.0(940)
일반가구	35.1	4.5	8.6	17.3	0.3	3.8	30.1	0.3	100.0(730)
저소득가구	29.0	14.3	6.2	20.0	0.0	5.7	24.3	0.5	100.0(210)
	$\chi^2(df)=30.916(7)$ ***								
어린이미술관									100.0(958)
일반가구	52.8	3.2	9.3	10.7	0.1	3.0	20.1	0.8	100.0(741)
저소득가구	41.0	12.0	12.4	15.7	0.0	1.4	16.6	1.0	100.0(217)
	$\chi^2(df)=41.235(9)$ ***								
문예회관									100.0(891)
일반가구	29.6	6.5	9.4	16.1	0.3	6.5	31.2	0.4	100.0(690)
저소득가구	27.4	26.4	8.5	15.4	1.0	3.5	17.4	0.5	100.0(201)
	$\chi^2(df)=70.886(7)$ ***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바. 이용 만족도 및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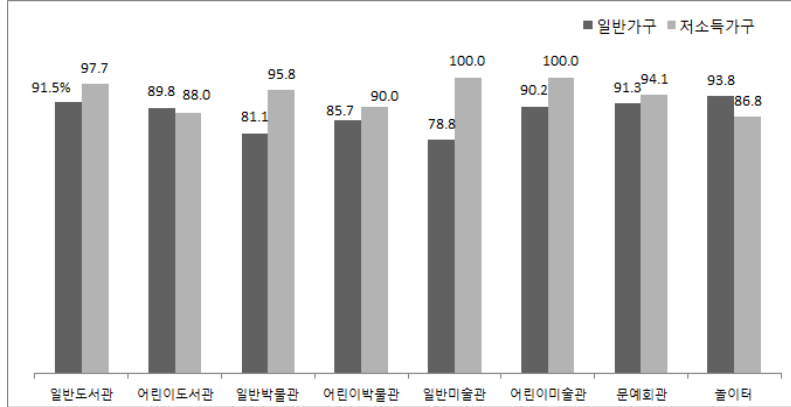
- 이용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족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근처 놀이터의 이용 만족도는 92.3%로 일반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더불어 가장 높음(표 8 참조).
 - 일반미술관 18.3%, 일반박물관 16.8%, 어린이박물관 14.0%, 어린이도서관 10.4%로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음.
- 대체로 공공재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극장, 놀이공원, 수족관, 동식물원의 이용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와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표 8〉 지난 1년 이용한 문화시설별 만족도

구분	단위: %(명)		
	만족함	만족하지 않음	계
일반도서관	92.8	7.2	100.0(207)
어린이도서관	89.6	10.4	100.0(202)
일반박물관	83.2	16.8	100.0(167)
어린이박물관	86.0	14.0	100.0(143)
일반미술관	81.7	18.3	100.0(60)
어린이미술관	90.5	9.5	100.0(42)
문예회관	91.7	8.3	100.0(109)
집근처 놀이터	92.3	7.7	100.0(946)
극장	91.7	8.3	100.0(421)
놀이공원	90.6	9.4	100.0(605)
사설 키즈카페	89.3	10.7	100.0(440)
과학관, 천체관	90.8	9.2	100.0(153)
수족관, 동·식물원	89.0	11.0	100.0(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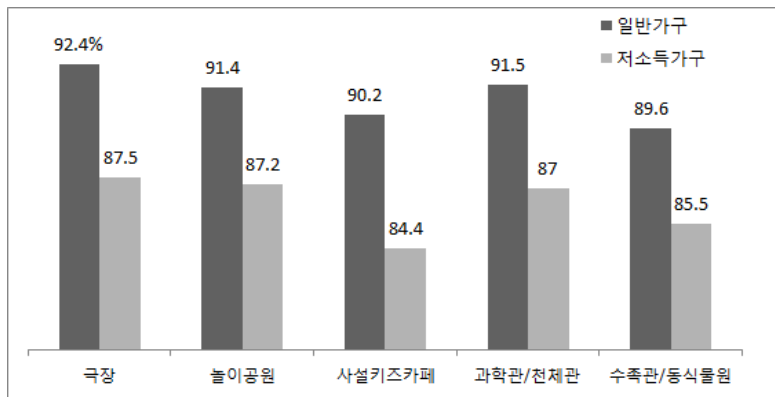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가구특성별로 보면,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공공재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했으나 만족도는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가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옴(그림 5 참조).



[그림 5] 가구소득별 공공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소비재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공공재 문화시설과는 반대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옴.



[그림 6] 가구소득별 소비재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사.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 학부모들의 대다수는(92.2%)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경험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27.1%) '창의성 계발을 위해'(18.8%) '흥미와 재능 발견에 도움'(17.3%) 순으로 응답함.

-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은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25.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20.4%)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18.4%) 순으로 응답함(1순위 기준).
- 중복응답에서는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15.5%)이 '프로그램 다양화'(22.3%) 다음으로 많았음.

〈표 9〉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1+2순위)

단위: %(명)

1순위	비율	1+2순위	비율
전체(1,000명)	100.0	전체(1,000명)	100.0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25.5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다양화	22.3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20.4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15.5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18.4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14.3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확충	14.5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13.8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7.0	문화시설 이용 정보 및 기회 제공	11.0
영유아 자녀 동반 시 비용 지원	5.1	영유아 자녀 동반 시 비용 지원	8.1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3.8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6.8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3.3	문화시설 이용 시간 확대	5.9
문화바우처 지급대상 및 비용확대	2.0	문화바우처 지급대상 및 비용확대	2.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장 많이 꼽음.
-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문화시설 이용할 때 비용지원이나 문화바우처 비용확대와 같은 비용지원을 더 희망함. 문화바우처의 지원확대는 일반가구보다 6배 가량 많이 응답함.
 - 일반가구는 어린이 전용 공간을 포함한 시설확충과 이용 정보 제공을 상대적으로 더 희망함.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가장 희망했다면, 읍면지역은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배치(28.1%), 시설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26.4%)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문화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1순위): 변인별

단위: %(명)

구분	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지역 간 균형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어린이 전용 시설 확충	기존 시설 내 어린이 전용공간 설치	이용 정보 제공	이용 시간 확대	자녀 동반 이용시 비용 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 비용 확대	계
전체	20.4	18.4	25.5	14.5	3.8	7.0	3.3	5.1	2.0	100.0(922)
가구특성										
일반	21.4	17.9	26.0	14.8	4.0	7.4	3.0	4.7	0.8	100.0(743)
저소득	16.2	20.7	23.5	13.4	2.8	5.6	4.5	6.7	6.7	100.0(179)
$\chi^2(df)=32.147(8)^{***}$										
지역규모										
대도시	18.5	16.6	23.9	15.9	4.1	8.0	3.2	7.1	2.7	100.0(410)
중소도시	20.5	17.4	29.7	13.6	2.8	7.2	3.3	3.8	1.8	100.0(391)
읍면지역	26.4	28.1	17.4	13.2	5.8	3.3	3.3	2.5	0.0	100.0(121)
$\chi^2(df)=32.025(1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설치 또는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희망함. 다음으로 어린이박물관, 수족관/동식물원이 설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어린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11〉 현재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1순위, 1+2순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비율		비율
전체(1,000명)	100.0	전체(1,000명)	100.0
어린이도서관	25.7	어린이도서관	19.1
어린이박물관	12.5	어린이박물관	12.6
수족관, 동·식물원	10.7	수족관, 동·식물원	11.7
집근처 놀이터	8.6	놀이공원	8.6
놀이공원	6.9	어린이미술관	8.4
시설 키즈카페	6.8	집근처 놀이터	7.9
어린이미술관	6.3	극장	7.2
문예회관	5.9	시설 키즈카페	6.4
극장	5.7	문예회관	4.8
일반도서관	3.2	일반도서관	2.4
일반박물관	2.4	일반박물관	2.3
일반미술관	1.1	일반미술관	1.4
기타	0.2	기타	0.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거주 지역에 설치를 희망하는 문화시설로 ‘②어린이도서관(25.7%)’, ‘④어린이 박물관(12.5%)’, ‘⑬수족관/동식물원(10.7%)’ 순임.
- 저소득가구에서 ‘⑧놀이터(15.1%)’와 ‘⑬수족관/동식물원(15.1%)’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옴.
- 읍면지역에서 ‘⑧놀이터(12.8%)’ 설치에 대한 수요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옴. 읍면지역은 문화시설의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어린이 문화시설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설치되어야 하겠음.

〈표 12〉 거주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변인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기 타	계
전체	32	257	24	125	11	63	59	86	57	69	68	40	107	02	1000(1,00)
가구특성															
일반	35	270	24	115	12	70	60	68	66	69	72	43	95	01	1000(782)
저소득	23	211	23	161	09	37	55	151	23	69	55	28	151	05	1000(218)
	² (df)=36.428(13)**														
지역규모															
대도시	31	258	18	112	22	54	65	76	56	56	110	36	101	02	1000(445)
중소도시	33	260	33	151	00	63	56	84	56	79	30	37	116	02	1000(430)
읍면지역	32	240	16	80	08	96	48	128	64	80	48	64	96	00	1000(125)
	² (df)=10.399(26)**														

주: ①일반도서관, ②어린이도서관, ③일반박물관, ④어린이박물관, ⑤일반미술관, ⑥어린이 미술관, ⑦문예회관, ⑧놀이터, ⑨극장, ⑩놀이공원, ⑪사설 키즈카페, ⑫과학관/천체관, ⑬수족관·동식물원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3. 영유아기 문화시설 이용 지원방안

- 가구특성에 따라 영유아기에 문화시설 이용 시기, 이용하는 시설 종류, 만족도 등의 차이가 발생함. 저소득가구의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재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따라서 저소득가구에 국한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모든 영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시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저소득가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에 본고는 저소득가구의 지원방안과 아울러 일반가구 대상의 지원방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겠음.

가.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

- 가구특성별로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정도, 이용 시기, 미이용 이유, 희망하는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문화시설 이용이 적고, 이용하는 시기도 늦으며, 미이용의 이유에서도 비용부담이 높게 나타남.
- 부르디외(P. Bourdies)의 문화자본론에 의하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문화이용의 차이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수준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문화이용 제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정책 영역으로서 영유아기의 문화이용 정도가 이후 생애단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더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생애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문화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나.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는 처음에는 가구원별 지원에서 현재 가구단위 지원으로 변경되어 한 가구당 1년에 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들은 문화를 독자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임. 가구당 지원을 하면 영유아 자녀를 위한 문화생활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리고 1년 5만원은 가족단위로 영화 한 편 이상을 관람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임.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비용확대를 제안함. 본 설문조사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수가 좀 더 많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일반가구 총

자녀수 1.57명, 저소득 가구 1.69명)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문화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문화바우처 취지에 부합됨.

- 영유아 자녀를 위해 사용한 문화시설의 이용료는 일정 금액을 포인트 적립식으로 누적하여 이듬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문화생활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임.

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실시

-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음.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도시거주 부모들은 ‘프로그램 다양화’(29.7%) 가장 희망한 반면, 읍면지역 부모들은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배치’(28.1%), ‘문화시설 확충’(26.4%)을 더 희망함.
- 따라서 양질의 ‘찾아가는’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전남 순천시에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이동도서관 ‘과란 달구지’은 몇 시간 머물렀다 가는 이동식 서비스가 아니라 몇 주 또는 1개월동안 지역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인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술 갤러리’ 등의 이동식 문화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아이들인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하겠음.

라. 기존 공공재 문화시설 홍보와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1) 적극적 홍보

-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를 꼽은 경우가 많았음. 이는 실제 없어서 이용을 못할 것일 수도 있지만, 있지만 있는 줄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내포할 수 있음.
 -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전국민 대상의 홍보도 필요함.

- 홍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을 '아빠 어디가'와 같은 가족프로그램에 장소협찬으로 제공하여 장시간 보여주는 방법이 일회성의 뉴스식 보도보다는 효과가 클 것임.
- 가족이 함께하는 박물관 체험(가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공 문화시설에 시청자로 하여금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2)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 실제로 영유아가 이용할 만한 문화시설이 없어서 문화시설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 영유아 문화시설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므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지하철역에 유모차를 구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함.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유아 문화시설에는 주차장이 중요한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함.
-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일반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이용하기에 제한점이 많음. 예컨대, 정숙을 요구하는 일반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기란 무리임.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문화시설 내에 영유아 전용 공간을 구비하여 공간과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유아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화장실과 세면대를 영유아 눈높이에 맞게 구비하였으며, 바닥을 온돌로 깔아서 바닥에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영유아 발달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함.
 - 본 설문조사에서 희망하는 문화정책으로 '어린이문화시설 확충'(15.5%)보다는 '프로그램 다양화'(22.3%)를 더 많이 꼽았으므로 새로운 시설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음.

마.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항상 똑같은 전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간 도서 구비가 빈약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것임. 또, 영유

아 자녀 대상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겠음.

- 영유아 자녀들과 자주 이용하는 극장, 놀이공원, 수족관, 동식물원의 경우 '자녀가 좋아해서'와 '자녀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문화시설이 영유아 자녀뿐 아니라 부모나 가족에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음.
 -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자녀 눈높이에 맞춘 유물 설명하는 동안, 부모들은 동일 시간대에 다른 동선으로 부모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각각 실시한 후, 부모와 자녀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바.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

-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이터는 영유아들이 가장 일찍,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문화시설임. 놀이터가 없는 지역의 지자체는 영유아 인구가 많고 적음을 차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책무감을 갖고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 특히, 문화생활 향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 밀집 지역이나 농산 어촌의 놀이터에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구비할 것을 제안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놀이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사.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도서관' 설립 추진

- 본 조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가장 설치가 필요한 문화시설 1순위로 꼽혔으며 또 공공재 문화시설 중에서 놀이터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나타남.
- 박물관·미술관에 비해 자주 이용하며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문화시설이란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은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설립'이란 슬로건을 표방하여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1개 이상 설치를 제안함.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
연구소.